

저자 (Authors)	金承璨 Sung-Chan Kim
출처 (Source)	코기토 16 , 1977.12, 69-83 (15 pages) Cogito 16 , 1977.12, 69-83 (15 pages)
발행처 (Publisher)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Institute of Humanit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01963
APA Style	金承璨 (1977). 彗星歌研究. 코기토, 16, 69-8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2 15: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彗 星 歌 研 究

金 承 璨*

차 례

I. 序	II-3. 乾達婆·乾達婆矣遊烏隱城
II. 本 論	II-4 彗星歌의 構造
II-1. 融天師의 詩分	III. 結 論
II-2. 古代人의 天文觀	

I. 序

彗星歌는 신라 眞平王대에 融天師가 彗星이 心大星을 침범하는 변괴를 일으키자 그를 퇴치하기 위해 지어 부른 10句體 향가로써 9分節로 되어 있다.

이 노래에 대하여 李秉岐 박사는 “大意는 讚慕로써 郎徒가 지은 노래”¹⁾라 하였고, 李明善씨는 “花郎道의 作品으로써 呪術 기능을 가진 노래”²⁾라 규정하였으며, 金東旭 박사는 “歌中에 樂神 乾達婆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가 營壇作梵하여 祈禳하여 부른 노래가 아닌가”³⁾라고 논술하고 있다.

이처럼 해설가에 대해 구구한 견해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필자는 화랑도와 불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彗星歌에 관련된 기사부터 轉揭하면 다음과 같다.

第五 居烈郎·第六 實處郎·第七 寶同郎 등 세 화랑의 무리가 楓岳에 놀러 가려는데, 彗星이 나타나 心大星을 범하였다. 郎徒는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 여행을 과하려 하였다 때에 天師가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별의 변괴는 즉시 없어지고 日本兵이 제 나라로 돌아가 오히려 福慶이 되었다. 대왕은 환희하여 郎徒를 보내어 楓岳에서 놀게 하였다 노래는

舊理東戶汀叱	(예 동쪽의 물가)
乾達婆矣遊烏隱城叱盼良望良古	(건달바의 노는 城을 바라보고)
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邪隱邊也蔽耶	(倭軍도 왔다. 烽火 사른 가여라)
三花矣岳音見賜烏戶聞古	(三花의 오름 보심을 듣고)
月置八切爾數於將來戶波衣	(달도 밝게 비추려 할 바에)
道戶掃戶星利望良古	(길 쓸 벌 바라보고)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彗星이여! 시된 사람이 있다)

* 國文學科 助教授 (國文學)

- 1) 李秉岐, 國文學概論, 一志社, 1961, p.103,
- 2) 李明善, 朝鮮文學史, 朝鮮文學社, 1948, p 56
- 3) 金東旭, 韓國歌論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p 30.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山 밑에 뗏더라)

此也友物比所音叱磬叱只有叱故⁴⁾

(어렵슈! 무슨 磬氣 있을까?)

Ⅱ. 本 論

Ⅰ-1. 融天師의 직분

融天師의 직분에 대한 견해는 세 갈래—僧侶라는 견해, 郎徒라는 견해, 呪術長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가 導出된 근거는, 첫째, 融天師의 「師」의 해석을 國師·大師·法師·禪師·念佛師·聖師 등의 「師」로 볼 것이나, 아니면, 靈師·雨師·弩師⁵⁾·供奉卜師·供奉醫師⁶⁾ 등의 「師」로 볼 것이나이다. 전자의 해석을 따르면 融天師는 승려가 될 것이고, 후자의 해석을 따르면 呪術師 또는 技術師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해석을 물리치고 故 趙芝薰 교수는 특이한 해석을내렸다.

一然은 國仙과 僧侶의 區別을 하여 國仙은 이름 밑에 「師」를 붙이고, 僧侶는 이름 위에 釋字를 冠하였다 月明師·融天師·忠談師는 前者의 例요, 釋良志, 釋永才·釋圓光·釋寶壤·釋惠宿·釋眞表 등은 後者의 例다⁷⁾

趙 교수의 이 해석방법은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國仙이 花郎의 別稱이거나 花郎 위에 존재한 花郎 總帥的 存在이라면, 月明師나 融天師 및 釋惠宿은 國仙 또는 花郎으로 史實에 記되어야 옳다. 그런데 三國遺事 卷第五 月明師 兜率歌條에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聞磬梵”이라 한 말이나, 同書 卷第五 二惠同 廬條에 “釋惠宿 沈光於女子世郎徒 郎既讓名黃卷 師亦隱居赤善村二(一今安康縣 有赤谷村)二十餘年”라 한 말들을 고려하면, 月明師나 釋惠宿은 결코 國仙이 될 수 없고, 오히려 僧侶이면서 國仙之徒(郎徒)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金煥泰 교수가 이른바의 僧侶郎徒가 될 것이다. 金煥泰 교수는 融天師·釋惠宿·月明師를 僧侶郎徒로 규정하고, 이들 僧侶郎徒는 郎徒라는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 郎徒들과 다름없는 郎徒이지만, 1代의 國仙에게는 한 사람의 僧侶郎徒가 있었고, 그 僧侶郎徒는 全花郎의 단체에 있어서 오직 한 사람의 成人이며, 僧侶라는 특수한 신분의 郎徒로서 어린 國仙을 侍從하고 保護·補佐하면서 그들 단체의 운영을 맡고 徒衆을 지도하는 책임을 진 郎徒 中の 第一人者(徒之)首라 하였다.⁸⁾

金 교수의 이 견해에 따르면 融天師의 성격에 대해 僧侶이니 花郎(郎徒)이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나올 수 없다

4) 三國遺事 感通第七 融天師 擘星歌 眞平王代條.

5) 三國史記 新羅本紀第六 文武王 九年條.

6) 三國史記 雜志第八 職官條.

7) 趙芝薰, 新羅歌謠考, 국문학 6집, 高國文學會, 1962, p. 38.

8) 金煥泰, 僧侶郎徒考, 佛教學報 7輯, 1970, pp. 262~68.

한편, 「師」를 기술사로 보았을 때 단순히 어떠한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기술사로서만이 아니라 洪良浩의 耳溪集 卷二 北俗篇에 보이는 “北俗好鬼神 男巫謂之師 師者衆所尊”이라고 한 기록이나 耳溪外集 孔州風土記에서의 “巫覡謂之師”라고 한 기록들을 참조하면 기술사에는 전문적인 기술 이외에 神術(呪術)이라는 기능도 아울러 가진 자임을 알 수 있다. 許映順씨는 이 점을 중시하여 融天師를 J.G. Frazer의 이른바 天氣의 呪術的 統制者라 규정하고 있다.⁹⁾

融天師의 직분에 관한 추정의 둘째 근거는 擘星歌의 가사에 들어 있는 “乾達婆”와 “乾達矣遊烏隱城”에 있다. 乾達婆는 梵語 Gandharva로서 健達婆·捷達縛·健闍婆·乾沓和·乾沓婆·彥達縛·捷陀羅 등으로도 표기되며, 譯語로 香神·嗅香·香陰·尋香行인데, 樂人의 稱도 되고, 八部衆神의 하나인 樂神一須彌山 남쪽의 金剛窟에 살며 酒肉은 먹지 않고 香만 구해 먹고 그 陰身을 도우면서 帝釋天의 技樂을 奏하는 일을 맡아 보는 神의 이름도 된다. 특히 서역에서는 俳優를 이름인데,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만 諸家の 음식의 향기를 찾아 그 집 문앞에 가서 여러 伎樂을 배풀고 음식을 구걸했던 자이다. 그리고 “乾達婆矣遊烏隱城”은 乾闍婆城·捷闍婆城·健闍縛城으로도 표기되며 譯語로는 尋香城·膺氣樓인데 樂入(健達縛)들이 幻術로 만든 城으로 그들이 그 속에서 遊戲를 했다고 한다. 이같은 乾達婆·乾達婆城을 가사에 차용한 것을 보아 擘星歌는 불교적 시가이며, 그 작가인 融天師도 따라서 僧侶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리에 대해 許映順씨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가사의 「乾達婆矣遊烏隱城」으로 사만의 呪歌가 아니고 除厄祓禳을 爲한 佛教儀式에서 쓴 呪歌가 아닌가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예나 지금이나 마친가지로 巫覡의 呪歌에는 불교 용어가 많이 차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佛教라는 고급신앙이 우리의 土俗信仰思想에 摻合한 사례를 端的으로 보인 것이라 할 것이다.¹⁰⁾

許씨의 이 논술에 의하면 融天師의 직분은 巫覡인 것이다. 그러나 一然이 엮은 三國遺事 卷第五 中的 感通篇에는 佛家的인 인물이나 사건들을 채집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融天師는 향가의 往往能感動天地鬼神한다는 가악의 感通觀을 가지고 佐星인 擘星을 물리치기 위해 擘星歌를 지어 부른 것인즉, 兜率歌를 지어 二日並現의 變怪를 퇴치한 月明師와 同軌의 인물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 즉 融天師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 왔을 때 세 花郎을 보좌하면서 그 위기를 鄉歌로서 다개한 僧侶郎徒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融天인 것처럼 (融天이란 이름이 그의 本名인지 後人의 命名인지는 논의로 함) 그는 僧侶郎徒이면서도 天心을 품고 天氣나 天体の 운행을 조절하고 융화할 뿐만 아니라 천지에 호응하여 천하를 감동시키고 교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 하겠다.

9) 許映順, 古代社會의 巫覡思想과 그 歌論의 研究, 釜大大學院, 1962, p. 116,

10) 許映順(1962), p. 139,

II-2. 古代人的 天文觀

擘星歌의 창작 동기는 三花郎의 무리가 楓岳에 놀러가려 할 지음 擘星이 心大星을 침범하므로 그들이 두려워 하여 놀이를 중단하려 할 때 그 변괴를 없애기 위하여 融天師에 의해 만들어져 불려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星佐의 卽滅과 日本兵의 遷國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心大星이 어떠한 별이기에 그 별에 대하여 擘星의 침범이 있다 화랑들이 楓岳에의 놀이를 중단했을까 하는 점과 둘째, 혜성과 日本兵과는 어떤 연계성이 놓여 있기에 그 별의 퇴치에 日本兵의 환국이 따라 왔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첫째의 문제점인 心大星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心大星이란 心宿中の 大星인 心星(Antares)을 이룸인데, 이 별은 동방인 蒼天에 위치하고 있다. 淮南子 天文訓에 보이는 하늘의 九野와 星宿의 위치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方位	天名	星	宿	方位	天名	星	宿
東方	蒼天	房·心·尾		西北方	幽天	東壁·奎·婁	
東南方	陽天	張·翼·軫		北方	玄天	須女·虛·危·營室	
南方	炎天	輿鬼·柳·七星		東北方	變天	箕·斗·牽	
西南方	朱天	觜·參·東井		中央	鈞天	角·亢·氐	
西方	兌天	胃·昂·畢					

그리고, 二十八宿과 그 밑에 배열된 地名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宮	星	宿	地名	宮	星	宿	地名
東宮	角·亢·房·心·尾·箕		鄭朱燕	西宮	奎·婁·胃·昂·畢·觜·參		魯魏趙
南宮	東井·輿鬼·柳·七星·張·翼·軫		秦周楚	北宮	斗·牽牛·須女·虛·危·營室·東壁		越吳齊衛

위 도표에서 보인 하늘의 九野와 거기에 배치된 星宿 및 그 星宿 밑에 배열된 地域들을 참고하여 心星에 대한 신라인들의 사고를 抽出해 보면, 心星이란 동방 七宿(角·亢·氐·房·心·尾·箕)가 벌여 있는 蒼龍 중 蒼天에 있고, 蒼龍 가운데에서는 天王이라 불리우는 별로서 心宿 성좌 중의 큰 별인 것이다. 그런데 飯島忠夫 박사가 心宿는 明堂 즉 天子가 天神을 제사지내고 政命을 내리는 장소의 宮에 比擬된다고 하고서 心星을 蒼龍의 심장에 해당되는 별이라 하였다.¹¹⁾ 이 점들을 고려할 때 心大星은 동방에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인 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별과 신라와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11) 飯島忠夫, 支那古代史と天文學, pp.14~15.

신라는 중국의 동쪽에 자리한 나라로 蒼天의 밑에 위치한 국가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東宮의 심장부에 국가를 건설하고 생활을 영위한다는 思惟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신라인은 自己中心의 力動的 自主精神을 가지고 외래 문화를 수용하여 그들 나름의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관을 형성했던 것이다. 중국의 漢字가 흘러들어 吏頭式 文字로 再構成되는가 하면, 天竺에서 전래된 불교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지국본위의 佛緣國土思想을 형성하여 本地垂跡譚들을 창출하였다.¹²⁾

이처럼 외래의 문화나 사상이 신라에 전래되면 일단 신라적인 문화나 사상으로 변질·재창조되듯 중국의 고대천문관도 신라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신라 본위의 천문관을 만들어 東宮의 가장 중심적인 心星을 자기 나라의 상징·자기 국왕의 상징으로 比擬하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流星이 心星을 犯하자 왕이 죽게 되었고,¹³⁾ 彗星이 心星을 犯하자 왕은 三花郎의 楓岳에의 놀이를 중지시켰던 것이니. 곧 心星에 어떠한 徵候가 나타나면 이는 국가의 안위·국왕의 신변에 적절된다고 시고했다. 이러한 思惟체계를 金烈圭 교수는 현실적 효용위주의 원리에 선 「연출의 世界觀」이라고 일렀다.¹⁴⁾

그 다음 彗星과 日本兵과의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가를 살피되, 먼저 古代人의 天文觀부터 一瞥하도록 하지.

古代人들은 지상의 인간적인 모든 조직 안배나 활동이 바로 하늘의 조직 안배나 활동 현상을 본뜬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하늘의 변화가 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관을 가지고 있었다. 淮南子 天文訓 冒頭에

入道를 圓이라 하고, 地道를 方이라 한다. 方은 어둠을 주관하고, 圓은 밝음을 주관한다. 밝음이 氣를 토해 내기 때문에 外景이라 하고, 어둠이 氣를 머금기 때문에 內景이라 한다. 氣를 토하는 것은 배풀고, 氣를 머금는 것은 변화한다. 따라서 陽은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陰은 受動的으로 변화한다.

라고 하여 天道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施設作用을 하는 데에 반하여 地道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天道의 施設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天文에 대한 思惟體系는 인체조직에도 작용하였으니, 天文訓에 보면,

동물 중에서 시림이 가장 귀하다 구멍과 肢体가 다 하늘에 통한다. 하늘에는 九重이 있고, 사람에게도 역시 九竅이 있다. 하늘에는 四時가 있어 十二月를 만들듯, 사람에게도 四肢가 있어 十二節을 부린다. 하늘에는 十二月가 있어 三百六十日을 만들듯, 사람에게도 十二肢가 있어 三百六十節을 부린다. 그러므로 인은 행할 때 하늘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天性)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인간의 신체구조도 하늘의 구조를 그대로 본떠 만들어졌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

12) 趙明基, 新羅佛敎의 理念과 歷史, 新太陽社, 1962, pp 61~63

金煥泰, 新羅 眞興大王의 信佛과 思想研究, 佛敎學報 5輯, 1967, pp 80~81

13)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九 景德王 二十四年 六月 流星犯心 是月王薨.

14) 金烈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一潮閣, 1977, pp.206~7.

늘에 순종해야 삶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准南子의 天文觀은 중국인뿐 아니라 당시인의 보편적인 천문관이었다. M. Eliade도 고대인에게 있어서는 實在란 天上的 原型的의 모방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지상의 江이나 都市나 山들이 천상의 모델로 이루어져 있어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은 相應한다고 했다.¹⁵⁾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고대인의 天文觀은 주로 神秘的 作用¹⁶⁾에서 成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地上과 인간계의 제현상이란 천상계의 제활동현상을 본떴고, 천상계의 제활동현상이란 지상과 인간계의 제활동현상의 반영이라고 사유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서로 영향하여 한쪽에 변화가 일어 났다면 다른 쪽에서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바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믿었다. 准南子 覽冥訓餘滴에서 “성인이 임금자리에 올라 바른 도를 품고 말없이 실천하면, 그 은택이 만민에 미치고, 반대로 임금과 신하의 마음이 乖離되면 하늘에도 나타나 태양 들레에 오색의 氣가 서로 어긋나게 흩어져 나타난다. 이는 천지와 사람의 神氣가 서로 감응하여 나타내는 것이라”하였고, 또 同書 精神訓에서도 “해와 달이 그 운행의 정도를 잃으면 일식이나 월식이 들어 빛을 잃게 마련이고 풍우가 때를 잃어 만물이 毀折되면서 災禍가 일어나고, 五星(歲星·熒惑·鎮星·太白·辰星)의 운행이 궤도에서 벗어나면 온 천하가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天地의 제현상은 서로 授受·對應관계로서 맺어진 줄 사고했다.

眞德王 元年의 毗曇과 女王의 대결에서 大星이 月城에 떨어지지 별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流血이 있어 폐망할 징조라 해석한거나,¹⁷⁾ 文武王 13年 봄에 妖星이 나타나고 지진이 있자 金庾信이 스스로 壽를 나할 厄象이라 풀이하고 祈禱를 한거나,¹⁸⁾ 惠恭王 2년에 天狗가 東樓 남쪽에 떨어지고 그의 여러 怪象이 나타났는데 이는 天下에 큰 병란이 일어날 조짐이라 한거나,¹⁹⁾ 僖康王 3年 겨울에 彗星이 서방에 보이고 芒角星이 동방으로 향하니 이는 밝은 것을 제거하고 새것을 시행하려는 징조로써 舊怨을 갚고 前恥를 없애버릴 吉祥이라 한 것²⁰⁾은 모두 위와 같은 그들의 天文觀에서 나온 해석인 것이다.

그러면 三國史記와 遺事에 散見되는 星宿의 변이와 그에 따라 일어난 결과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史實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文武王 19년 4월에 熒惑星이 羽林星을 지키고, 6월에 太白星이 달에 들어 갔으며, 流星이 參大星을 범하였고, 8월에는 太白星이 또 달로 들어갔는데 角干 天存이 죽었다 (史記 新羅本紀 第七)
- 2 文武王 21년 5월에 지진이 있었으며 流星이 參大星을 범하였고, 6월에 天狗星이 西南坤力에 떨어졌다 7월 1일에 왕이 돌아갔다. (史記 新羅本紀 第七)

15) M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Princeton univ. press, 1971, pp.12~13.

16) 에반스·프리사드 共著, 金杜珍譯, 原始宗教論, 探求堂, 1976, p.145.

17) 三國史記 列傳 第一, 金庾信 上條.

18) 三國史記 列傳 第三, 金庾信 下條.

19) 三國遺事 紀異第二 惠恭王條

20) 三國史記 列傳 第四, 金陽條.

3. 聖德王 14년 9월에 太白星이 庶子星을 가리고, 10월에 流星이 紫微를 범했으며, 12월에는 流星이 天倉으로부터 太微로 들어 가므로 죄수를 석방했다. (史記 新羅本紀 第八)
4. 孝成王 6년 2월에 東北方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우리와 같았으며, 5월에 流星이 參大星을 침범하고 왕이 돌아갔다. (史記 新羅本紀 第九)
5. 景德王 19년 4월 초하루에 두 해가 나타나 挾旬이나 없어지지 않으니 日官이 緣僧을 청하여 散花功德을 지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아뢰었다. (遺事 感通第七 月明師 兜率歌條)
6. 惠恭王 15년 3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 民家가 파괴되고 백여명이 사망했으며, 太白星이 달을 침범하므로 百座法會를 베풀었다. (史記 新羅本紀 第九)
7. 興德王 11년 元旦에 日蝕이 있었고, 6월에 孛星이 東으로 흘렀으며, 7월에 太白星이 달을 범했다 12월에 왕이 돌아갔다. (史記 新羅本紀 第十)
8. 神德王 6년 정월에 太白星이 달을 범하고, 7월에 왕이 돌아 갔다 (史記 新羅本紀 第十二)

위의 史實들을 볼 것 같으면, 고대에는 日月과 五星의 운행으로부터 流星의 흐름 하나하나까지를 빠짐없이 관찰하여 거기에 점성술적인 해석을 가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했던 것이다. 만일 天體의 변이가 흉조라 판단되었을 때는 그 조짐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가지 의식을 거행하였다. 특히 그 凶兆가 국가의 쇠망이나 왕권의 위축 및 왕의 수명에 직결되는 것이라 하였을 때는 그 災厄을 禳禱하기 위해 거국적인 儀式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遺事 融天師 彗星歌條의 彗星도 국가·국왕의 상징인 心星을 범하게 되니, 거국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彗星이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꺼리는 별로서 災殃의 별·不吉한 별로 여기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 별이 天空에 나타나게 되면 국운의 쇠미·왕권의 위축이 齋來될 조짐으로 생각하고 그를 퇴치하기 위해 여러 행사를 거행했으며, 史官들도 상세하게 그에 관해 기록했던 것인데, 史記에서만 몇 事例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逸聖尼師今 16년 8월에 孛星이 天帝에 나타나고, 11월에 우뢰가 울어 서울에는 무서운 병이 들었다. (史記 新羅本紀 第一)
2. 文武王 16년 7월에 彗星이 北河積水 사이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六七步나 되었다. 唐兵이 道臨城으로 침입하므로 縣令 居尸知가 싸우다 죽었다. (史記 新羅本紀 第七)
3. 孝昭王 10년 2월에 彗星이 달에 들어갔다. 5월에 靈巖郡太守 一吉浪 諸逸이 公利를 거역하고 私利를 도모하므로 一百杖으로 벌 주고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듬해 7월 왕이 돌아갔다. (史記 新羅本紀 第八)
4. 惠恭王 6년 5월 11일에 彗星이 五車의 북쪽에 나타나 6월 12일에야 없어졌다. 29일에 호랑이가 執事省으로 들어오므로 잡아 죽였다. 8월에 大阿漚 金融이 모반하므로 伏誅하였다 (史記 新羅本紀 第九)
5. 閔中王 3년 11월에 孛星이 남쪽에 나타나서 20일만에 없어졌다. 12월에 서울에 눈이 오지 않았다. (史記 高句麗本紀 第二)
6. 寶藏王 27년 4월에 彗星이 畢昴의 사이에 나타났다. 唐의 許敬宗이 말하기를 「彗星이 東北에 보이는 것은 高句麗가 곧 滅亡할 징조」라 하였다. (史記 高句麗本紀 第十)

그러면, 彗星과 日本兵과는 어떠한 상관성이 개재해 있길래 彗星을 물리치니 日本兵이 제나라로 돌아 갔다는 것일까? 고대인들은 앞의 事例에서 보이듯 彗星이 나타나면 신하의 謀叛이나 敵의 侵攻을 받게 되며, 또 彗星이 나타난 天空 밑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流血에 이

어 破亡을 가져 온다고 생각했다.

心星이 東宮의 蒼天에 위치한 星宿로 全蠟座에 있는 별이니, 心星을 침범한 혜성도 동남쪽에 나타났다고 보겠다. 혜성이 동남쪽에 그냥 나타났다면 倭國에 어떤 불길한 일이 발생될 것을 조짐하나, 彗星이 동남쪽에 나타나 신라를 상징하는 心星을 침범하게 되었다면 신라에 어떤 災殃이 온 것을 조짐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때의 彗星은 물론 日本兵에 比擬될 도리밖에 없다. 따라서 혜성의 퇴치는 곧 日本兵의 퇴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新羅人은 倭敵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神經過敏狀態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니,²¹⁾ 史記 新羅本紀에 기록된 赫居世代로부터 眞平王代까지의 倭軍의 침입을 보면 알 수 있다.

- | | |
|-------------------------|-------------------------|
| ① 赫居世 8년(邊境) | ② 南解次次雄 11년(海邊·명선 백여집) |
| ③ 脫解尼師今 17년(木出島) | ④ 祇摩尼師今 10년(邊力) |
| ⑤ 奈解尼師今 13년(邊境) | ⑥ 助賁尼師今 3년(金城·전여명 참회) |
| ⑦ 同尼師今 4년(東邊) | ⑧ 沾解尼師今 3년(舒弗那于老 주임) |
| ⑧ 儒禮尼師今 4년(一禮部) | ⑩ 同尼師今 9년(沙道城) |
| ⑪ 訖解尼師今 37년(風島金城) | ⑫ 牟勿尼師今 9년(釜峴東原) |
| ⑬ 同尼師今 38년(金城) | ⑭ 實聖尼師今 4년(明活城·삼백여명 참회) |
| ⑮ 同尼師今 6년(東邊) | ⑯ 同尼師今 14년(風島) |
| ⑰ 訖祇麻立干 15년(明活城) | ⑱ 同麻立干 24년(南邊·東邊) |
| ⑲ 同麻立干 28년(金城) | ⑳ 慈悲麻立干 2년(月城·兵船 백여집) |
| ㉑ 同麻立干 5년(活開城) | ㉒ 同麻立干 6년(敵良城) |
| ㉓ 同麻立干 19년(東邊·200여명 참회) | ㉔ 同麻立干 20년(五道) |
| ㉕ 炤知麻立干 4년(邊力) | ㉖ 同麻立干 8년(狼山南) |
| ㉗ 同麻立干 19년(邊力) | ㉘ 同麻立干 22년(長峰嶺) |

魚允旭의 東史年表의 신라 眞平王 45年條에 「融天下大師作彗星歌 鄉歌之傳始此」라 하였는데 眞平王 45年(623)을 日本書記 推古天皇 31年(623)의 기사와 맞추어 보면 이 해에 萬名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에 쳐들어 갔던 史實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아 三國史記에는 倭敵의 침입사건들을 많이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으니, 倭兵이란 신라인에게는 宿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儒禮尼師今 12년에는 倭國征伐論이 나왔고, 實聖尼師今 7년에는 倭兵의 침입 본거지인 對馬島에 대한 征伐論까지 대두되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佛力으로 그들을 퇴치키 위해 皇龍寺 九層塔을 造成했고, 感恩寺를 創建했으며, 文武王은 승화하여 東海의 護國龍이 되었던 것이다.

彗星歌도 단순히 혜성퇴치에 목적을 두고 불리어진 것이 아니라 위와같은 신라인의 念願(외적의 퇴치) 위에 만들어지고 불리어진 상징성을 띤 향가라 하겠다.

21) 十一年夏四月, 大風東來, 折木飛瓦, 至夕而止, 都人訛言, 倭兵大來, 爭遁山谷, 王命伊演翌宗等諭止之 (史記 新羅本紀 第一, 祇摩尼師今條)

II-3. 乾達婆·乾達婆矣遊烏隱城

乾達婆와 乾達婆城에 대하여 전술한 바 있으나 彗星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시 논급하고자 한다.

乾達婆와 乾達婆城에 관해 辭源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히 풀이하고 있다.

乾闥婆 (1) 神名, 見佛經, 天龍八部之一, 乃天樂神也, 亦云陵寶之神, 不啖酒肉, 惟嗅香氣.

(2) 佛經云, 日初出時, 見城門樓櫓宮殿行人出入, 日轉高轉滅, 名乾闥婆城, 亦曰化城, 乃乾闥婆所幻作.

三品彰英 박사는 혜성가에 乾達婆가 차용된 것에 대해, 花郎徒가 동해에 때로 나타나는 靨氣樓현상에다가 그들이 가진 海神신앙(龍神신앙)을 결부한 데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²²⁾

그런데 동해에서 일어난다는 乾闥婆城(靨氣樓)을 옮겨 파악하기 위해 詩人墨客이 동해변에서 읊은 漢詩文中 靨氣樓가 등장되는 시귀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 少年書劍老邊陲 此日東遊又一奇
薄日靨樓橫海立 搏風鵬翼似雲垂
〈東國輿地勝覽 蔚珍縣 樓亭凌虛樓·許琮詩〉
- 千條柞石成奇峯 蒼崖烟郭水墨濃
鯨鯢起海雪霜漲 靨氣浮空樓閣重
〈上同書 通川郡 樓亭叢石亭·安軸記〉
- 遠見村莊橫翠障 俯看海市出重樓
〈上同書 杆城郡 題詠·蔡璉詩〉
- 每風恬波靜, 雲消雨止, 舉日望則, 其東無東, 其南無南, 靨樓懸見, 龍嶼出沒.
〈上同書 平海郡 樓亭望洋亭·蔡壽記〉

詩人墨客이 붓끝으로 나타내고 있는 靨氣樓는 佛經에서 풀이하고 있는 靨氣樓와는 자못 다르다. 동해의 靨氣樓는 乾達婆(樂人)의 幻作術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해가 뜰 때에 보인 것도 아니다. 동해변의 眺望에서 느낀 아름다움(海中에 屹立한 奇巖의 壯觀이나 햇빛이 비친 층층한 구름의 아름다운 景觀)을 靨氣樓로 표현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혜성가의 乾達婆는 무엇으로 해석함이 옳겠는가? 필자의 견해로서는 須彌山の 남쪽 金剛窟 속에 사는 帝釋의 天樂神인 乾闥婆로 해석함이 옳지 않을가 한다.

乾闥婆란 前述한 바와 같이 八部衆神의 하나로 帝釋을 奉侍하면서 伎樂을 맡는 神인데 地上의 寶山 중에 있으면서 술과 고기는 먹지 않고 香氣만 맡아 陰身을 도우며, 또 陰身으로부터도 향기가 남으로써 香神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인데 항상 부처님이 說法하는 자리에 나타나 正法을 찬탄하고 불교를 수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神이다.

이 乾達婆를 彗星歌의 歌詞에 등장시킨 것은 신라인의 호국사상과 佛緣國土 사상에서 연유된

22) 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 三省堂, 1943, pp.94~95.

것이나, 신라인의 호국사상은 眞興王代부터 불교의 호국사상을 끌고 음으로 하여 전래의 호국사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²³⁾

百高座를 개설하여 仁王經을 設하고, 皇龍寺에 九層塔을 造成하며, 狼山에 四天王寺를 창건한 일들은 다 九韓(日本·中華·吳越·托羅·鷹遊·靺鞨·丹國·女狄·纓貂)의 跋扈를 진압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 염원에서 나온 發願으로, 이 호국사상은 佛說仁王般若婆羅密經의 護國品과 受持品 및 金光明最勝王經의 四天王護國品 등 불경에 所據한 호국사상인데, 이 사상은 또 花郎徒의 호국사상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圓光이 화랑의 근본정신인 世俗五戒를 貴山과 箒項에게 준 점과 또 진평왕 35년 7월의 百高座에 佛經을 강론한 점을 감안하면, 불교와 화랑도가 가진 호국사상의 상통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乾達婆도 이러한 양호국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하게 되었으니, 또 하나의 사상이 그 속에 褶合되어 있으니, 이것이 곧 佛緣國土思想이다. 乾達婆는 四天王天 중 東洲 持國天의 多羅吒天王 밑에 있는 神將이다.

(洲名)	(四天王名)	(天王名)	(神將名)
東洲	持國天	多羅吒天王	乾闥婆·毘舍闍
西洲	廣目天	毗留博叉天王	諸龍·富單那
南洲	增長天	毗琉璃天王	鳩槃荼·薛荔多
北洲	多聞天	毗沙門天王	夜叉·羅刹

四天王天은 六欲天 중에서는 第一下天으로서 須彌山 四層級 중에서는 第四層級에 위치한 天部인데, 여기에 護世四天王이 있어 각 天王이 한 天下의 人民을 보호하면서 帝釋天과 함께 佛法의 外護神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乾達婆도 持國天의 多羅吒天王 밑에서 法藏을 護持하면서 帝釋을 奉侍하고 伎樂을 맡아 보는 임무를 가진 神將인데, 신라인의 佛緣國土사상에 의해 신라에 정착하게 되었다. 즉 本地垂跡說의 한 변이형태로서 狼山이 乾達婆가 살고 있는 須彌山으로 比擬되었던 것이다.

狼山은 慶州府의 동쪽 9리에 있는 鎮山인데, 신라시대에는 三嶽 중의 하나로 大祀를 지낸 靈山이다.²⁴⁾ 이 靈山에 관한 설화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實聖尼師今 12년 8월에 구름이 狼山에 일어났는데, 樓閣과 같이 보이고, 향기가 성하게 피지며, 오랫동안 없어지지 아니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이는 반드시 仙靈이 내려와 노는 것으로 웅당 福地 일 것이다.”라 하고서 이후부터는 누구도 그 곳의 樹木을 베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史記 新羅本紀 第三)
- (2) 善德왕이 無恙時에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에 아무날 아무날에 수을 것이니 나를 勿利入 중에 끌어 달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이 그 뜻을 몰라 “어느 곳입니까?”하고 아뢰니, 왕이 “狼山の 남쪽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달 그 날에 이르러 왕이 과연 돌아가시므로 여러 신하가 狼山の 남쪽에 장사지냈다. 그후 10여년에 文虎大王이 四大王寺를 王墳의 밑에 세웠다. 佛經에 四人王의 위에 勿利天이 있다고 일렀으니, 그제야 대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운을 알게 되었다 (遺事 紀異第二)

23) 三國史云, 新羅眞興王十二年辛未, 句麗惠亮法師, 歸于新羅, 王以爲僧統, 始置百座講會及八關之法 (大東譯教考), 그리고 傳來 호국사상이란 奈林·穴禮·骨火 등 三所の 護國神을 믿은 것 (遺事 金庾信條)

24) 大祀三山 一奈歷(曹比部) 二骨火(切也火郡) 三穴禮(人城郡) <史記 雜志一 祭祀條>

위의 설화를 보면, 狼山이 忉利天이 있는 須彌山에 比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乾達婆는 이 寶山에 살면서 多羅吒天王을 도와 東洲를 수호하면서 佛法을 파괴하는 反文明的 야만민족인 日本族의 침입을 막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乾達婆를 須彌山の 樂神으로 보았을 때 彗星歌의 「乾達婆矣遊烏隱城叱膺良望良古」와 「達阿羅浮去伊叱等邪」는 쉽게 풀이될 수 있을 듯하다. 즉 앞의 귀절은 「乾達婆(伎樂을 잡히며)의 놀고 있는 (東洲 수호의)城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로, 뒤의 귀절은 「(彗星이 四天王이 살고 있는) 狼山(의 동남쪽의) 아래에 떴더라」로 해석될 것이다.

狼山이 府의 동쪽 9리에 있고, 心星이 東宮의 별이며 全蠲座에 있으니, 彗星은 狼山 동남쪽에 떠 있게 된다. 이 彗星(일본병을 상징)이 東洲의 護世天王인 多羅吒天王的 밑에 있으니 「此也友物比音叱彗叱只有叱故(어렵쑤 무슨 晷氣가 있을까?)」라고 했던 것이다.

특히 여기서 해석에 문제가 되는 것은 「月/達」·「有叱多/伊叱~/也藪~/」의 語辭이다. 李崇寧 박사의 所說처럼 이들 語辭들은 그 意味나 讀音 및 用法이 달랐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선 李崇寧 박사의 소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향가 표기법체제란 가장 日用漢字로(쉽다는 点과 눈에 익었다는 点) 가장 알기 쉬운 表音을 한 것이라는 點을 據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怪癖한 讀法을 내세운다든지 一字一音節, 一字一音主義이어야 함은 不動의 鐵칙이 되어야 한다.²⁵⁾

이 所說에 따르면, 향가의 표기법체제는 一字가 一音節 내지 一音으로 되어 있으니 讀法도 그렇게 하여야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筆者의 생각으로는 讀法뿐 아니라 그 訓도 한낱 말에 한 表記主義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한 향가 속에 한 낱말을 漢字를 빌어 쓰되, 二重的 表記法을 썼다면 鄉札文字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月/達」은 「달/山」으로 해석함이 옳겠고,²⁶⁾ 「有叱多/伊叱多/也藪耶」는 「있다/있다(이 조매 과거시상보조어간으로 발달)/이슈라 (“이다”의 감탄형)」로 풀이함이 옳을 것 같다.²⁷⁾ 또 이렇게 풀이함으로써 위와 같은 彗星歌의 뜻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II-4. 彗星歌의 構造

彗星歌는 僧侶郎徒인 融天師에 의해 창작되고 歌唱된 소위 10句體 향가로서, 創作 동기는 국가의 안위와 왕권의 위축에 직결된 彗星의 吐奇에 있었고, 또 歌唱으로써 星佐郎滅과 日本兵還國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呪歌임에는 틀림없다.

呪歌가 일정한 효과를 얻으려면 儀式을 필요로 한다. 景德王代에 月明師가 二日並現의 怪를

25) 李崇寧, 新羅時代 表記法體系에 관한 試論, 서울大論文集 2輯, 1955, p.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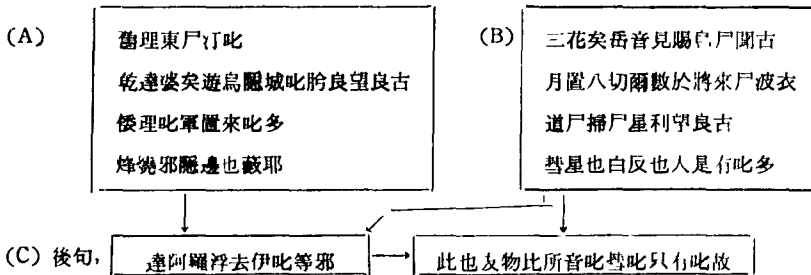
26) 달은 「月羅理」「月下」「月良」로 讀書婆郎歌·願往生歌, 怨歌, 處容歌에는 표기되어 있음.

27) 「有如(願往生歌)·有向米(祭亡妹歌)·有叱下是(慕竹旨郎歌)/是史藪耶(讀書婆郎歌)」를 참조해보면, “있다”는 반드시 「有~」로 표기되었고, “이다”는 달리 표기된 듯하다.

祓禳하기 위해 開壇作啓의 명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凶兆인 晦성 퇴치에도 곧 營壇作梵의²⁸⁾ 儀式이 있었음을 推測할 수 있다. 그러나 壇을 모으고 梵會를 베푸는 가운데에서도 星佐 祓禳의 要樞는 彗星歌인 것이다.

그러면, 星佐祓禳의 要樞인 彗星歌의 구조는 어떠한지 星佐即滅과 倭賊退治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 노래의 구조는 소위 10句體 鄉歌의 구조와는 그 軌를 달리한다. 즉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A)는 地上的 兵佐, (B)는 天上的 星佐, (C)는 地上的 兵佐와 天上的 星佐의 無力性을 노래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A)와 (B)는 각기 독립된 내용이나 (C)의 前語節에서 동시에 연결된다. (C)의 이와같은 結詞法은 餘他 10句體 鄉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 특징이다.

- (願往生歌) 此身遺也置止 四十八大願成道賜去 [집속법]
- (桑郎歌) 桑理尸心未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체언+(주격)]
- (廣書及郎歌) 栢史叱夜次高支好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집속법]
- (祭亡妹歌) 彌施利良逢乎音 道修良待是古如 [체언+(주격)]
- (遇賊歌) 唯只伊吾音之叱恨隱 濟陵隱安支尙宅都乎隱以多 [체언+주격]
- (安民歌)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國惡太平恨音叱如 [집속법]
- (得眠歌) 吾良遺知支賜尸等焉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집속법]
- (彗星歌) 達阿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比所音叱彗叱只有叱故 [종지법]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10句體 향가의 後句는 前語節의 끝이 「체언—주격」, 또는 「집속법」으로 되어 있어, 그 뒤에 後語節이 반드시 종속하여야 하지만, 彗星歌는 前語節의 끝이 終止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의 歌詞에서 바로 (C)의 「此也友…」의 語節이 오더라도 하등의 어색함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金烈圭 교수도 이 노래의 핵심은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와 「此也友物比所音叱彗叱只有叱故」에 있다 *하고서 앞키절은 소극적인 명칭법으로 이루어진 獨立節이요, 뒷키절은 앞키절의 반복에 의한 강조법의 어절이라 했다.²⁹⁾ 金 교수의 이 연결해석법은 곧 (C)의 前語節이 晦성가의 핵심문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음을 시사하

28) 金東旭, 宗教와 國文學, 韓國思想大系 I, 成大大東文化研究所, 1973, p. 74.

29) 金烈圭, 鄉歌의 文學의 研究 一斑, 鄉歌의 語文學의 研究, 西江大人文學研究所, 1972, pp. 17~18.

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필자가 前項에서 해석하였듯이 「達」을 「山」으로 하였을 때는 (C)의 前語節도 呪歌의 핵심문 속에 들어 갈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첫째, 彗星犯心大星의 變佐가 倭賊의 侵入의 상징이라면, 彗星이 彗星이 아니라는 發想法³⁰⁾은 倭賊이 東洲 守護의 乾達婆神將 밑에 있어 無力하다는 發想法과 다름지언정 그 결과의 조짐을 미리 前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呪術性을 가지게 되고, 둘째, 「(彗星이 天樂神이 놀고 있는) 山 아래에 뒹더라. 어쩔슈 무슨 彗氣가 있을까?」에서 앞 語句가 佛說仁王般若婆羅密經 受持品에 있는 七難 중 星宿失度難과 賊來侵國內外賊起難을 일으키는 彗星이나 倭賊이 다 東洲를 수호하는 多羅毗天王의 神將 밑에 있어 그에 調伏된다. 그러니 彗星이 무슨 佐變을 일으킬 彗氣가 있으랴! 하여 前語節의 한 조건 밑에서 後語節의 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彗氣가 없다는 確定)를 가져 올 수 있으니 呪歌의 기본형식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의 前語節은 彗星歌의 異質的 두 呪詞를 하나로 맺어주는 語節인 것이다. 그리고 (C)의 前語節로 하여 彗星歌는 彗星에 대해서는 直接的인 呪歌로 作用할 뿐 아니라 倭賊에 대해서는 隱喻의 呪歌로 作用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니, (C)의 前語이야말로 (A)와 (B)를 각기 독립된 呪詞로 만들지 않고 隱喻로 맺어지는 기능을 하는 歌詞로서 散文記錄의 星佐即滅과 日本兵 還國의 결과를 동시에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다음 彗星歌의 내용을 보면, (A)는 乾達婆의 놀이를 倭賊의 침입으로 착각한 점을, (B)는 세 화랑의 遊岳에 길 쓸별을 凶兆인 혜성으로 착각한 점을, (C)는 彗星이 乾達婆의 밑에 있으면서 길 쓸별이니 彗氣가 없다는 점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心星 근처에 나타난 彗星이라는 존재는 세 花郎의 遊岳을 돕는 별이요, 東洲 守護神將의 밑에서 調伏된 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彗星의 心大星 침범이 곧 倭賊의 신라 침입의 상징이요 그 前兆라 했을 때, 彗星에 관한 呪詞가 隱喻法의 呪詞가 되어 作用할 對象 그것이 倭賊인 것³¹⁾과 그리고 노래의 내용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彗星歌에는 花郎의 위대성을 稱頌하고 있음을 看破할 수 있는 것이다. 金善珽 박사도 이 점을 중시하여 “혜성가는 삼 화랑의 높은 덕을 칭송한 노래다. 혜성은 달 밑에서 아무 힘이 없고, 달은 삼 화랑에게 비하면 또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화랑의 높으신 덕은 태양과 같다는 노래다.”³²⁾라 하였다.

이상의 여러 점들로 볼 때, 혜성가는 형식상 10句體 향가 중에서도 독특한 구조를 지녔으며, 그 내용에는 화랑도의 호국정신과 불교의 호국사상이 융합 조화된 속에서 창작된 향가라 할 수 있겠다.

30) 金烈圭(1972), p 18.

31) 金烈圭(1972), p 18.

32) 김선기, 향가의 새로운 풀이(길뽕뽕 노래), 現代文學 145號, (1967, 1月號).

Ⅱ. 結 論

향가의 感通力을 前提로 하고 凶兆인 彗星과 왜적을 퇴치하기 위해 融天師에 의해 창작된 彗星가를 그 배경과 형식구조 및 내용면에서 고찰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融天師는 高僧도 郎徒도 또 呪術師도 아닌, 月明師와 同軌의 인물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 왔을 때 그 위기를 향가로 타개한 僧侶郎徒로서 天心을 품고 天氣와 天體의 運行을 조절하고 융화할 뿐 아니라 천지에 호응하여 천하를 감동시키고 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歷史的인 實存人物의 이름이나 아니면 彗星을 물리쳤으니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냐의 문제는 彗星가의 기능이나 문학가치를 논의하는 데 하등의 의의가 없으니 탐구에 보류함이 옳을 것 같다.

2. 心大星은 東方 蒼天에 위치한 大星으로 신라인에게 있어서는 自國과 國王을 상징하는 별로 사유되었는데, 이러한 신라인의 天文觀은 自己中心的 力動的 정신체계의 소산이라 하겠다. 그리고 彗星의 心大星 침입은 곧 倭敵의 신라침범을 조짐한 것으로, 이때의 彗星은 왜적의 상징이라 하겠다.

3. 歌詞 中の 乾達婆는 西域의 樂人 또는 靈氣樓가 아니라 東洲의 護世天王인 多羅叱天王的 밑에 있는 天樂神으로 慶州의 狼山에 定着된 것은 신라인의 佛緣國土思想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乾達婆矣遊烏隱城」은 許暎順氏의 考究와 같이 狼山을 두고 이름입은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歌詞 中の 「達阿羅」는 「山 아래」로 해석되어야 앞뒤의 문맥이 통하게 된다.

4. 彗星歌의 형식구조에 있어서 落句는 餘他 10句體 향가의 落句와는 다르다. 이는 前 1句~4句와 後 5句~8句를 잇게 하여 呪詞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형식 배려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노래의 내용에는 靑島의 호국정신과 불교의 호국사상이 융합·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노래는 彗星과 倭敵을 퇴치시키는 단순한 呪歌가 아니라 그 속에 신라인의 力動的 思惟觀과 애국사상이 들어 있는 뜻 깊은 노래라 하겠다.

Abstract

A Study of Hyesung-ga

Sung-Chan Kim

On the premise that Hyang-ga has in it a sort of magic force the writer studies on the background, the formal structure and the contents of Hyesung-ga, which was sung by Yoongcheon-sa to expel the comet and the Japanese troop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Yoongcheon-sa was neither a high priest nor a magician, rather he was a monk-nangdo who overcame the national crisis by composing Hyang-ga. He could harmonize the weather and the movements of celestial bodies and be in cooperation with the earth and sky and thus affected the heaven.
2. Antares(心大星) a large star in Changcheon(蒼天) of the east, was believed to be the symbol of the king by the Silla people. So, the invasion of the comet into the star was supposed to be that of the Japanese to Silla. Such astronomical view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an egocentric, dynamic thought system of the Silla people.
3. The word Kundalpha (乾達婆) means Cheonrak-god (天樂神). The god was worshipped at Nang-mountain (狼山) in Gyeongju because they thought the mountain one of the sacred places which was in relation with Buddhism.

The word tal-are (達阿羅) can be interpreted as “under the mountain” considering the unity of the whole context.

4. Hyesung-ga is not to be regarded as a mere magic-song. The spirit of national protection which was the main cause of Hwarangdo and Buddhism of that time was presented in the song. So, the song is meaningful because we can conjecture from it the dynamic thought system and the patriotism of the Silla people.